

협상에서의 실리와 명분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요즈음은 법조계 개혁 문제가 신문을 장식한다. 변호사를 대량 생산해서 법률 서비스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존 법조인들은 혼란만 온다며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아직도 그렇지만 수능시험 성적을 가지고 입시철만 되면 학원, 학교, 언론기관들이 점수에 따라 갈 수 있는 대학과 학과들을 나열하는데, 대개는 최고 점수를 받은 사람은 법대로, 최저 점수로 갈 수 있는 학과는 농대 농업계 학과들이 차지하게 된다. 농업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보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전국이 들끓고 있다. 역시 정치 지망생들이 많다 보니 과열이 안될 수가 없다.

법대에 입학하고 고시에 합격해서 법조인이 되어도, 여의도에 진출한 국회의원들이 사회봉을 3번 쳐서 법을 만들거나 개정해 버리면 수십만권의 법률서적은 고쳐지거나 새로 인쇄해야 하고, 법관들은 그 법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되고 행정관료는 그 법에 따라 행정을 해나가야 된다.

금년들어 “세계화만이 살 길이다”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었다. 이제 세계를 알아야 되고, 세계화가 안되면 낙오하고 우리의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데, 세계화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직 구체적 설명이 없는 실정이다.

농장에서 열심히 일해도 수입개방에 따라 도매금으로 넘어가면 헛수고가 되니 정보에 밝아야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자가 싼 융자금을 잘 활용하고 사료는 외상으로, 판매는 현찰로 해서 현금으로 소위 말하는 재테크를 잘 해야 세계화 시대에 살아남는 길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양돈 선진국처럼 세계화가 무엇인지 몰라도 조합이나 계열주체회사가 알아서 다해주기 때문에 농가는 농장에서만 열심이 일하면 되는 양돈인들이 부럽다. 우리는 양축가가 되려면 건축, 시설, 환경, 사료, 위생, 유통, 개량, 인력관리 등 만물 박사가 되어야 하는데 문제가 있고 산업의 질적 발전이 어려워진다.

얼마전 일본 지하철에서 사린가스가 살포되어

66

머리 좋은 농민이 연구하고
 기록해가면서 농장에서 열심히 일해
 생산비를 절감한다 해도 수입을 개방해 나가고,
 사료값이 오르고, 달러(\$)가 평가절하되어 간다면
 농장에서 열심히 일한 것이 허사가 되기 때문에 안타깝다.
 더군다나 줄 것은 주고 얻을 것은 얻어야 하는 협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없이 미국측의 요구에 너무 쉽게
 무너지고 있는 한미축산물 무역협상을
 보면 더더욱 안타깝다.

99

인명이 희생되고, 미국에서는 오크라호마에 있는 연방 정부 청사가 폭발물에 의해 어린 생명을 포함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아프리카의 르완다에서는 8,000여명의 난민을 총기로 난사하여 살해하는 등 충격적인 사건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다. 이런 때문인지 최근 우리와 관계가 있는 진공포장육에 대한 유통기한 연장문제가 보도되었음에도 이제는 체념에 가까운 표정들을 보면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다.

희망과 용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이다. 양축농가의 2년이래 숙원이며 대선 공약이었던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시행되기도 전에 냉장육(진공포장육) 유통기한 연장이나 선 통관, 후 검역 실시 등은 농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농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데 큰 역할을 한다.

머리 좋은 농민이 연구하고 기록해가면서 농장에서 열심히 일해, 생산비를 절감한다 해도 수입을 개방해 나가고, 사료값이 오르고, 달러(\$)가 평가절하되어 간다면 농장에서 열심히

일한 것이 허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안타깝다.

4월 26일부터 한·미간 축산물 무역에 대한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협상도 하나의 기술이고 협상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만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최근 매스컴의 보도를 보면, 미국측의 요구에 아무 얻는 것 없이 너무 쉽게 무너지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줄 것은 주고 얻을 것은 얻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한다. 결국은 모두 양보하면서 상대편에 나쁜 인상만 심어주고, 아무 것도 얻지 못하는 협상이 가장 잘못된 협상이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을 앞두고 몇일전(4월 12일자) 중앙일보에 전직 외무장관과 주미대사를 역임한 분의 한미관계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토로한 글을 소개한다.

“한·미간에 무슨 협상이건 미국이 마음먹고 하자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우리 외교의 최고 관심은 따라가는 가되 어떻게 나라 체면을 살리느냐였다.